



이리역폭발사고 시민백서 발간사업 보고

발표 순서...

1. 이리역폭발사고의 사망자 59명 -기록된 죽음과 기록되지 못한 죽음
2. 이리역폭발사고를 겪은 구술자 14명의 이야기
3. 이리역폭발사고, 막후의 핵심인물들
4. 새이리건설과 이리의 변화
5. 이리역폭발사고를 어떻게 기억해야 할 것인가?

이리역폭발사고 사망자 59명



사망자 58명 – 경향신문 11.14자

강준태(36.익산군 낭산면청남리260), 강판기(7.이리창인동2가1), 고기석(27.군산시사정동430), 고병재(12.이리창인동2가1), 고윤순(18.여.고창군고수면초재리), 김덕진(34.김제군김제읍신풍리251), 김동욱(29.창인동1가211의32), 김문임(52.여.이리시마동), 김병휘(3.이리창인동2가1), 김삼수(6.이리창인동2가1), 김성민(3.이리시마동), 김순이(58.이리창인동2가1), 김순임(47.여.이리갈산동92), 김재순(46.여.갈산동92), **김형옥(34.기관사)**, 남궁희씨부인(42.이리시모현동6가84), 도시락집딸(6.이리창인동2가1), 문성철(1.이리중앙동2가), 문영숙(8.여.이리중앙동2가), 박금렬(17.이리시모현동217), 박장순(50.이리창인동2가1), 박창옥(24.익산군황등면 황금리999), **방성주(28.입환작업인부)**, **방순기(30.익산군춘포면오산리194)**, 서복자(22.이리창인동2가1), 성경숙(7.여.남창국교2년.이리창인동2가1), 성원희(11.남창국교5년.이리창인동2가1), 성현근(15.이리남중2년.이리창인동2가1), 송옥경(50.이리창인동2가1), 심정두(3.창인동1가1), 양양례(27.이리창인동2가1), **엄상식(26.기관조사)**, 오명주(3.이리창인동2가1), 유송화(86.이리창인동2가1), 유영애(17.여.모현동1가220의3), 윤영숙(26.이리창인동2가1), 윤영순(23.여.군산시중앙동3가27), 이광종(26.동천건설사원.장수군성천면충성리동산부락), 이만석(43.전남나주군나주읍남의동86.대한통운정부양곡 호송원), 이양림(45.이리창인동2가1), 이영자(8.이리창인동2가1), 이해임(1.여.이리시모현동6가84), 임근성(9.이리창인동2가1), 임두영(1.이리창인동2가1), **임복동(34.보선사무소선로반)**, **임성춘(49.기관조사)**, 임은주(9.이리창인동2가1), 전금자(59.여.평화동), 전전례(60.이리창인동2가1), 정길순(20.전북익산군함열면와리), 정세규씨부인(39.이리창인동2가1), **조진구(51.기관사)**, **최평식(45.검수원)**, **한인섭(34.입환작업인부)**, 한종구(16.익산군팔봉면석암리), 황연순(27.이리창인동2가1), 황은숙(17.여.이리시동산동279의4), 황천순(36.창인동1가44)

실종자(8명)

최평식(41.이리역검수원), 한유상(40.이리역검수원), 공인배(50.이리역검수원), 임사견(30.이리역검수원), 박재술(26.이리역검수원), 강태호(35.이리역검수원), 이경세(41.검수조역), 김영덕(50.검수조역)

시체확인(11/14)

김영덕(50.검수조역), 이경세(41.검수조역), 공인배(50.이리역검수원), 임사견(30.이리역검수원), 박재술(26.이리역검수원), 최평식, 강태호(35.이리역검수원)

이리역폭발사고 사망자 59명

- 동아일보 11.12에서 가장 먼저 사망자(실종자) 56명으로 보도
 - 17명의 명단 중 5명 성명미상으로 1차 보도
- 매일경제 11.14자로 사망자 47명 보도. 경향신문 11.14자로 사망자 58명 보다
 - 2명 성명미상, 사망자 이름이 정확하지 않은 상태로 58명으로 보도. 후에 사망자 1명 추가 발견

- 철도순직자 16명 (사고현장 7명, 역 구내 9명)
 - 엄상호, 공인배, 조진구, 최복수, 김영덕, 이경세, 최평식, 한인석, 방순귀, 한유상, 최용옥, 임성춘, 임사견, 박재술, 강태호, 임복동
- 신원 확인되었으나 성명미상 3명
 - 남궁희씨부인(42.이리시모현동6가84), 도시락집딸(6.이리창인동2가1), 정세규씨부인(39.이리창인동2가1)
- 세 식구 사망가족
 - 성경숙(7.여.남창국교2년.이리창인동2가1), 성원희(11.남창국교5년.이리창인동2가1), 성현근(15.이리남중2년)

정확한 사망자 수에 대한 의심, 사망자 전원의 정확한 신원과 이름, 철도순직자 외 사망자들의 당시의 상황과 직접적인 사망원인은 여전히 미궁 속에 있다.

이리역폭발사고 무연고 사망자의 수와 그 이후

- 무연고 사망자 안치 후 연고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팔봉공원묘지에 안장
- (무연고 사망자 추정) 철인동 지역 거주인구 500명에서 확인된 사망자 28명 (약 6-7% 사망)
 - 철인동 가족들은 필사적으로 구출, 손님들과 아가씨들 거의 구출되지 못함. (평균 사망자 비율보다 높을 가능성)
 - 9시는 취침하기에는 약간 이른 시간이고, 축구경기가 있었다는 점. (평균 사망자 비율보다 낮을 가능성)
 - 당시 철인동 유동인구(방문객과 접객인)를 약 300명 정도로 추산할 경우, 6-7%인 20명 내외로 추산.



이리역폭발사고 관련자들의 구술기록



- 김복자 (철도순직자 한유상의 아내 24쪽)

1977년 이리역폭발사고 희생자인 한유상(당시 39세)의 아내이다. 한유상은 당시 이리역에 근무하고 있었고, 집은 옥구군 서수면에 있었으며 10살, 5살, 1살의 3녀가 있었다. 구술자 김복자는 1942년생으로 사고 이후 세 자녀를 키우며 홀로 살아왔다. 지금은 익산시 모현동 현대2차 아파트에 살고 있다.

(그 와중에) 어디 가서 우리 신랑을 찾아? 찾을 길이 없어 그리고 그때 당시에 눈, 비 막 진눈깨비처럼 떨어지고, 도로는 포장 안돼서 자갈로 난리고 흙이 진흙탕으로 난리고... 이리역은 다 파손이 돼서 어디를 가야할지...

한참을 오다가다 (알만한) 사람들 만나서 혹시 한유상씨 봤냐고 물어봐도 그 사람도 도망 댕기듯이 피하기만 해. 정신없이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이제 산 사람 찾기는 포기하고 시신이라도 찾자고 돌아다니는데...

(희생자 중에) 최고로 어려운 것이 우리 신랑이었어. 한유상씨를 못 찾겠어.

(거기서 죽은 사람들) (조각난) 시신들을 하나씩 하나씩 (모아 뒀는데) 하나는 발모가지, 하나는 머리통 조각 조각해서 16개를 모여 뒀어. 근데 우리집 아저씨는 없어.

(사고현장) 선로 발 밑에 가니까 언제다 찢는가 포크레인으로 크게 판 것이 저수지야.

철로를 끊고 저수지를 파놓았는데 너무 무서운 거야. 이 속에 파 묻혀 있나 하늘로 날러갔냐 두 갈래 길이야.

그러면 우리 식구들은 이게 어떻게 판단하냐, 안 찾는다고 할 수도 없고...

그래 가지고 그것이 보름을 갔어. 날이면 날마다 진눈깨비로 슬픔의 비가 오고 눈이 오고 그러는데 생활이 생활이 아니고...

- 공수남 (철도순직자 공인배의 아내 34쪽)

1977년 이리역폭발사고 희생자인 1977년 이리역폭발사고 희생자인 공수남(당시 00세)의 아내이다. 공수남은 당시 이리역에 근무하고 있었고, 집은 옥구군 서수면에 있었다.

그렇게 몇일 만에 (여기저기서 흩어진 시신들 조각들) 주워서 보여주는데, 기관사들은 기차타고 나가려고 대기하고 있다가 (사고 순간에) 밖을 내다보다 일을 당했으니까 얼굴이 달아나고... 그렇게 생겼어요. **그때 16명이 돌아가셨는데 여덟 사람은 왼발 한쪽씩만 찾았어요. 한 사람은 오른발 한쪽 찾고...**
오른발을 맞춰 볼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남편들을 부인들이 발 씻겨 줘야 찾아보래요.
 내가 남편 발을 씻겨줄 새가 어디 있어요. 촌에서 농사짓고 애들 키워야 하는데 오른 발을 가져다 맞추니까 안 맞더라고요. 남편 발인지 잘 모르겠어. 그 때 (우리 남편이) 시계 산 지 얼마 안돼서 시계 케이스가 좀 반짝반짝한 새 것이 나와서 우리 남편 시계인가 했는데, 그 뒤로 발이 나왔거든요. 발 하나 그렇게 놓고 포장 쳐놓고... 시체 같지도 않죠. 시체를 놓고 우는 사람이 부러웠어요

사고 후에 그때 우리 위로금이라고 해서 (매달) 25,000원 줬거든. 철도청에서 25,000원 줬는데 그것도 15년 지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보훈청에서 따로 5만원씩 줬어. 근데, 애들이 너무 어리고 돈도 없으니 내가 신탁에 청소부로 들어갔어요. 그때는 사고 때 6개월 됐던 애가 학교 다니니까 (여유가 생겨서) 취직을 했지.

근데, 청소하면서 그거 월급으로 12만원 받는다고 보훈청에서 또 5만원을 안준대요.
 정규직 직원이라고. 너무하죠. **결국 내가 신탁을 그만뒀죠. 그만 두고 밤에 야식 해주는데 나갔어요.**
거기 뭐 대학생들도 바텐으로 일하고 그런 곳인데, 거기서 야식을 해주는 거지. 직원들 밥해주고 야식 나갈 때, 내가 부엌에 음식 해주고 그렇게 해서 17만원 받았어요. 오후 5시에 가서 새벽 2시에 들어와요. 잠을 못자지.

● 김순영 (철도순직자 엄상호의 아내 41쪽)

1977년 이리역폭발사고 희생자인 엄상호(당시 29세)의 아내이다. 남편 엄상호는 당시 이리역의 기관조사로 근무하고 있었고, 집은 이리공고 인근 주택이었다. 사고 당시 1년6개월된 아들과 뱃속에 9개월된 유복자로 자란 딸이 있었다. 구술자 김순영은 1953년생으로 사고 이후 피아노 레슨을 하면서 유복자를 비롯 두 자녀를 키웠다.

이리역에 철도직원들 일하는 부서가 많더군요. 그 과에 있던 사람들이 다 불끄러 나왔다가 죽은거예요. 합숙소에서 뭐 파자마 바람으로 나왔다 일을 당해서 시체도 못 찾고....
나중에 유족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결국 다리 하나 가지고 한 네 명이 나뉘서 항아리에 담고 그걸로 공동묘지에 묻었다고 하더라구요. 우리 남편은 (입환작업 중에) 기관차에 올라가 있으니까 사실 거기는 안전한 곳이라고 해요. 근데 그때 사람들이 폭발한다고 했으면 좋았는데, ‘불이야!’ 하고 사람들이 달려가니까 (기관차 안에서) 내다봤을 거 아니예요. 거기에 창문이 있거든요. 얼굴을 내밀고 그쪽을 바라보는 순간에 (폭발이 나고) 얼굴에 파편을 맞았어요. 얼굴이 하나도 없더라구요.

그때 쓰러지고 나서 눈을 떠서 보니까 바로 집 옆에 있던 오래된 산부인과에 누워 있더라구요. 결국 장례식에는 참석을 못했죠. 아버님, 어머님, 친척 분들이 다 가서 장례를 치루고. 그런데 거기서 배속에 애기가 이상한 거예요. 충격을 받은거죠. 9개월 됐는데. 의사 선생님이 치료를 해야 된다고 해서 입원을 하고 있었어요. 그 뒤로는 아버님들이 했으니까 장례절차는 제가 그 상황만 알죠.
우리 아버지가 딱 7년. 7년 하고 그 해에 기관사로 승진 할려고 하는 참인데 그 난리가 났어요. 스물아홉에. 스물 넷에 결혼해서 아빠하고 햇수로 딱 3년 살았네요. 결혼해서 애들을 연년생으로 낳았죠.

● 이준기 (이리역폭발사고 당시 철인동 거주. 당시 25세 59쪽)

이준기씨는 이리역폭발사고 당시 최대 피해지역이었던 철인동에 살고 있었고 당시 영등동 산업단지의 전구공장에서 일하고 있었다. 사고 당시 23살이었고 그의 집은 여인숙을 운영하고 있었다. 말하기 어려운 가정사임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인터뷰에 응해주셨다.

당시 살던 집은 철인동(창인동)에 있었어요. 집은 좀 민망한 얘기지만은 어머니께서 역전에서 여인숙업을 하셨어요. 당시 여인숙은 다 무허가였죠.

철인동은 동네 골목들이 거미줄 같이 생겼었어요. 좁은데는 (도로폭이) 1미터도 안됐었어요. 동네가 연결되고 들어가고 나오는 골목이 엄청나게 많았어. 그런 골목들이 거미줄 같이 연결됐어 그건 아예 그림을 그릴 수가 없어요. 마살매나 철인동 다 산동네라고 해야지. 높은 산은 아니지만 산과 산 사이에 가운데 철도를 낸거여. 한쪽은 마살매 다른 쪽은 철인동 이렇게 된거지.

(폭발사고 당시) 그때 창인동 성당에 있었는데 그때는 전부다 고층아파트나 그런 건물이 없었잖여. 성당이 높은 데 있어서 성당에서 보는데 평 터지는데 그걸 내 눈으로 봤다니까 거기서. 그 시간에 나는 성당에서 크리스마스 성가연습을 했었어요. 성당이 다 사방이 유리창으로 돼있는데 갑자기 팡! 하면서 바람이 때리는데 그냥 그 창문들이 다 날라갔어요, (사고 지점에서) 불과 한 4-500미터 그 정도 밖에 안 돼. 이리역에서 창인동 성당 사이에 아무 것도 없으니까 그냥 바로 때렸어. 바람이 휙 불면서 얼굴을 때리는데 그 때 내 귀가 다쳤어.

● 최대식 (이리역폭발사고 당시 철인동 거주. 당시 15세 66쪽)

최재석씨는 이리역폭발사고 당시 이리역에 가장 가까웠던 철인동에 살고 있었다. 사고 당시 그는 중학교 2학년으로 15살에 불과했지만 부상을 입은 부모님을 보살폈고, 이후 소라산 천막촌과 창인아파트 생활을 두루 거쳤다. 그의 집은 철인동에서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다.

그때 저희 집이 토담집이에요. 동네 집들이 다 그런 집인데, 벗집하고 황토하고 비벼가지고 벽을 쌓고 그 위에 기와는 별도로 얹히고. 지금 같은 벽이 아니죠. 근데 이제 쿵! 뭘 소리가 들리긴 했는데, 갑자기 (흙이) 쏟아지는거야. 정전이 되면서 쿵! 이런 진동이 있으면서 그냥 막 뭐가 쏟아지더라고. 그래서 순간적으로 고개를 숙이고 한참을 눈을 감고 있었어요. 불과 몇 분 지났나? 몇 분 지나서 눈을 떠보니까 하늘이 보이는거야. 밤인데. 저녁 9시가 넘었으니깐 하늘에 별이 보이는거야.

완전히 무너져버렸으니깐. 그런데 아버님이 저쪽 어디 한쪽에서 나오시더라고. 그런데 그 양반이 가만 보니깐 좀 이상해. (그때는) 후레쉬도 없이 깜깜하고 암흑 천지니까 잘 안보여요. 그런데 얼핏 보니깐 어디를 맞았는가봐 외상이 있더라고, 피를 많이 흘리서더라고... 그니깐 어떡해요? 일단 좀 있으니까 누나도 나타나고, 이제 더 이상은 안되겠더라고. 아버지가 일단 외관상으로 볼 때 피가 막 얼굴의 절반 이상 덮어버리니까,

(흙이 입 속로 들어오니) 말을 더 뱉어내지를 못하는 거지. 그런데 (누나는) 아마 수십 번 불렀을거 아녜요. 어머니나 누나나 서로 얼마나 불렀겠어. 어머니가 안보이니까, 분명히 묻혔는데. 그런데 마지막 소리를 들었나봐. 그래서 (누나가) ‘여기서 무슨 소리가 난다. 거기를 파보자’. 그래가지고 어머니를 찾았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늦었어도 어머니는 그때 돌아가셨을 거예요.

- 정승오 (이리역폭발사고 당시 철인동 거주. 당시 7살. 73쪽)

최재석씨는 이리역폭발사고 당시 이리역에 가장 가까웠던 철인동에 살고 있었다. 사고 당시 철인동에서 영풍관이라는 술집을 운영하고 있었다. 철인동-소라산-모현아파트를 다 거치면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

쿵~ 소리나면서 이 집 전체가 싹 가라앉아버렸어요. 그래서 진흙이 있죠.. 진흙이고 했는데.. 우리엄마가 쿵소리나니깐 ... 엄마말은 나가려던 찰나에 그랬다 하더라고요. 아빠는 하춘화쇼 보고 있고... 엄마가 보니깐 집이 내려앉아버렸으니깐 니네들 다 죽는다해서 손으로 다 찢대요. 그러니깐 순서대로 간거예요. 첫방부터해서 나랑 막내를 가볍게 꺼냈대. 나도 기억나 그때. 껌껌해서 불이 없으니깐 전기도 없으니깐... 그리고 기다리라해서 기다렸어.

그때 나머지 방에 있던 누나들은? 몰라요. 우리가 보통.. 누나들 같은 경우가 평상시에 내가... 우리가 공마당에서 놀고.. 술집이다보니 우리가 밥 먹고 또 나가버려요. 형들은 만화방에 있고, 그럼 보통 평상시에 느낌에도 누나들이 보통 내 눈에 보인 것이 7~8명이 꼭 보였어요 최소. 방이 10개정도 되었으니깐 양쪽으로.. 그래서 보통 7~8명이 보였어요. 그런데 사고나고 다음날 아무도 없었어요. 우리엄마도 이 이야기는 안하더라구요. 구할 수가 있겠어요?

이름도 없고, 본명도 쓰지 않았을 테고. 그렇죠.. 그 당시에는 그랬어요. 다른집도 다 그랬죠. 그런데 우리 위령제 보면 위령제 위패가 58개가 올라가있거든. 말이 안되요. 내 아는 친구들, 가족들, 형들.. 주소 족보 있는 사람들 이야기지. 그 당시에 그 족보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없어요. 나머지는 다 뜨내기라 생각하면 되요. 그리고 술마시는 손님도 많았고..

● 나훈 (이리역폭발사고 당시 연합통신 기자. 86쪽)

나훈씨는 이리역폭발사고 당시 이리 주재 연합통신 기자였다. 기자생활 중 중공기 불시착 사건, 이리역폭발사고 등을 겪었고 은퇴 후에는 시의원 등을 지냈다.

지금 같으면 민주화가 되가지고 세월호 보니까 몇 년 동안은 정부에서 수백억을 들여서 하잖아. 그때는 정부에서 ‘덮어.’ 그러니까 덮은 거야. ‘그만 끝내.’ 그게 우리가 볼 때는 세 배, 네 배 된다고 보는 거야. 150명, 200명 죽었다고 풍문은 많았어도 확인할 길이 없어요. 그냥 묻어버린거지 뭐.

그 안에 신고를 여러 번 받았어요. 피해자 신고를 정부에서. 받았으면 죽었으면 그 사람들이 신원을 내고 신고를 했을 것 아니에요. 근데 안 나와서 이것이 공식 유가족과 정부 측과 공식발표한 것이 요것이란 말이에요.

박정희 말기 말기니까 박정희가 유신이니 자기가 인제 또 우리가 생각할 때 영구집권을 하는데 이게 사건이 터져버렸다고요. 그러니까 박정희 입장에서는 여기다가 모든 것을 쏟아 붓으려고 우리가 요구만 했으면 줘야겠더라고요. 아, 줘지. 그런데 그렇게 길도 말이야 6차선, 8차선으로 해주겠다는 걸 여기 있는 기득권자들이 말이지 축소시키고.

그 다음에 아파트도 말이죠. 그것보다 더 많이 지어졌을꺼라고 그러. 근데 자기 집 없어진 사람들이 신고를 받는데 자기 집이 없는 거야. 계약서도 없고. 자기 집이 날라 갔는데. 내 집이 없어졌으면 내 집 주소지 아니면 머냐 그게, 지적도가 있어야할거 아니야. ‘내집없어졌어요.’ 하는데 없어 자료가. 그러니까 집을 많이 못지어줬다는 얘기가.

- 김영시, 박득권, 김병철 (이리역폭발사고 당시 이리역 직원 103쪽)

김영시씨는 이리역폭발사고 당시 28세, 이리역 소속 기관사였다. 현재 82세이며, 초임 발령부터 60세 은퇴할 때까지 32년간 익산역에서만 근무했다. 현재 익산역 철우회 회장을 맡고 있다. 박득권씨는 현재 84세, 김병철씨도 함께했다.

그래서 내가 와가지고 목욕탕에다 환자들 돌아가신 양반들을 갔다가 봤더라고. 시신을 찾았어. 찾았는데... 다는 못찾았지. 그때 그 양반들 가서 목욕탕에다가 봤는데 보니까... 익산기관차사무소 목욕탕. 그 두 양반들을 보니까, 새까맣게 그실라가지고선 보니까. 그게 내 모습이야. 내 모습. 내가 적성검사 아니었으면 내가 그렇게 죽었어. 보고나니까 참 그 하나님이 참 내가 교회를 다니고 뭐 이렇게 이렇게 나를 살려주셨나. 나 살리기 위해서 그 양반이 돌아가시고. 내가 한 것은 아니지만은 마음이 참 되게 아프고, 그 다음날 여기 그 입환을 했어요. 그 여기 막 웅덩이 파지고 엉망진창인거 (김영시).

일단 불을 꺼야 된다고 생각하고. 어어, 막 물을 갖고 가고. 객화차 사람들이 많이 죽었어요, 그때. 객화차 사람들도 물을 막 뜨고 불 끄러 가는 거야. 가는 찰나에 확 쳐버렸어. 그때 사상자가 나는 확실히 모르겠어. 역무원은 없어. 역무원은 죽은 사람이 없어요. 근데 거기서 불끄러간 객화차 직원들. 객화차사무소. 소속. 객화차사무소 소속이고. 사무관 사무소인데, 사무소 사무관이고 익산역은 서기관이고. 그 당시에. 그게 객화차 사무소 소관 사람들이야. (박득권)

11시쯤 사무실 나왔을 거야. 나왔더니 소장이 박승준 씨야. 우리소장이, 박승준 씨가 막 울고 있어. 화촉불을 막 이렇게 내로, 그 내로라네. 침목을 화촉불을 켜놓고 초상집 화촉불 같이? 그 우리 뭐야, 목욕탕 앞에 켜놓고 울고 있더라고. 그래서 ‘소장님, 어떻게 됐어요?’ 하니까 아무개도 죽고 아무개도 죽고 아무개도 죽고 아무개는 행방불명이고 막 그래. 한 10명을 데. (김병철)

● 이충희 (이리역폭발사고 당시 이리시 회계계장. 125쪽)

이충희씨는 이리역폭발사고 당시 이리시청 회계계장으로 사고 직후부터 수습과정 전체를 온전히 지켜보았다. 주재 연합통신 기자였다. 기자생활 중 중공기 불시착 사건, 이리역폭발사고 등을 겪었고 은퇴 후에는 시의원 등을 지냈다.

지금 같으면 민주화가 되가지고 세월호 보니까 몇 년 동안은 정부에서 수백억을 들여서 하잖아. 그때는 정부에서 ‘덮어.’ 그러니까 덮은 거야. ‘그만 끝내.’ 그게 우리가 볼 때는 세 배, 네 배 된다고 보는 거야. 150명, 200명 죽었다고 풍문은 많았어도 확인할 길이 없어요. 그냥 묻어버린거지 뭐.

그 안에 신고를 여러 번 받았어요. 피해자 신고를 정부에서. 받았으면 죽었으면 그 사람들이 신원을 내고 신고를 했을 것 아니에요. 근데 안 나와서 이것이 공식 유가족과 정부 측과 공식발표한 것이 요것이란 말이에요.

박정희 말기 말기니까 박정희가 유신이니 자기가 인제 또 우리가 생각할 때 영구집권을 하는데 이게 사건이 터져버렸다고요. 그러니까 박정희 입장에서는 여기다가 모든 것을 쏟아 붓으려고 우리가 요구만 했으면 줬을꺼라고요. 아, 줬지. 그런데 그렇게 길도 말이야 6차선, 8차선으로 해주겠다는 걸 여기 있는 기득권자들이 말이지 축소시키고.

그 다음에 아파트도 말이죠. 그것보다 더 많이 지어졌을꺼라고 그러. 근데 자기 집 없어진 사람들이 신고를 받는데 자기 집이 없는 거야. 계약서도 없고. 자기 집이 날라 갔는데. 내 집이 없어졌으면 내 집 주소지 아니면 머냐 그게, 지적도가 있어야할거 아니야. ‘내집없어졌어요.’ 하는데 없어 자료가. 그러니까 집을 많이 못지어줬다는 얘기가.

- 김완주 (이리역폭발사고 당시 전북도청 기획계장. 135쪽)

김완주 前지사는 이리역폭발사고 당시 전북도청 기획계장으로 사고 직후부터 전북도청에서 수습과정과 국가사업을 관리했다. 사고 후에는 <총화의 기적> 백서작업을 직접 진행했다.

당시에는 보안사 직원들이 상주하면서 도지사를 직접 상대하고 그랬어. 우리는(공무원들은) 꿈쩍도 못했지. 군사독재의 폐해가 많았던 시절이었어. 보안사가 <총화의 기적> 백서 작업을 다 관리 감독했어. 내용을 읽어보고 입맛에 안 맞으면 다 바꾸라고 하고. 정부에 비판적인 이야기를 쓸 수가 없었지. 말하자면 정부가 제대로 보상을 했느냐 이런걸 따질 수가 없어. 더군다나 황(인성)지사가 군사정부 라인이라 더했지.

백서를 만들라고 하는데 자료가 없어. 그럼 만드는거야. 그런데 이걸 만들려면 합리적이어야 하잖아. 보안사는 자료를 제공하는 곳이 아니고. 모든 사고통계는 중앙정부 통계로만 나가. 보안사 관심은 정부에 대해 비판적이냐 아니냐 이것 뿐이고. 중앙정부에 사망자 수가 많고 파괴된 곳이 많다고 해야 지원이 더 많아질거 아냐. 그래서 사망자가 더 된다고 하면 근거가 머냐고 따져. 우리로써는 불리하지.

사망자 수를 못 세지. 근거가 없으니깐.. 사망자 통계를 우리가 낸 게 아냐. 군이 한거야. 지금 같으면 어렵없는 일이야. 당시에는 죽었는지 살았는지 죽은 사람이 누군지 알 수가 있어야지. 진상조사위원회라도 했을텐데. 그래서 그때 사고규모에 비해서 사람이 조금 죽었다는거야. 그 사건은 축소됐을 거야. 또 그곳이 그런 지역이라 사망자를 정확히 알아내기 어렵잖아. 가족이 주장해야만 알 수 있잖아. 사망자 수는 정부 발표를 따라야 해. 무연고 사망자들 많았을 거야. 기억은 안나는데. 그것을 확인해주는 사람이 없어. 정부의 공식 통계 외에는 없었지.

- 김완주 (이리역폭발사고 당시 전북도청 기획계장. 135쪽)

김완주 前지사는 이리역폭발사고 당시 전북도청 기획계장으로 사고 직후부터 전북도청에서 수습과정과 국가사업을 관리했다. 사고 후에는 <총화의 기적> 백서작업을 직접 진행했다.

이춘기씨 유명했어. 지팡이 짚고 다니고 거물급 인사였어. 유족들을 만나서 이 양반이 다 설득하고 다녔지. 그 당시 유족이 사납고 그런 인물이 없었어. 그냥 고만고만 해가지고 넘어가고.. 만약 지금 같으면 난리났지. 그렇게 많이 죽었는데

당시에 보상은 파격적으로 했어 정부가. 민간인 수습차원에서 보상을 더 준거야. 그때 법적보상비가 형편없었거든. 기준 자체가 옛날이고 제대로 된 게 없었어. 그 당시에는 그 기준으로 보상을 해주면 수습이 안돼. 그 당시에 아파트 집 두 채 정도를 살 수 있는 정도로 보상했어. 그 당시에는 큰 거야. 군사정부 시절에 민심이 혹시 이반될까봐. 그때 호남의 민심이 좋지 않았거든.

정부차원에서는 이 기회로 많이 풀었어. 그때 큰 사건이었어. 사람이 많이 죽었잖아. 화약관리는 정부책임이야. 정북가 결정적으로 잘못된거야. (그런데, 한 사람의 부주의로 싹우고 끝났어) 그래서 그 당시 군사혁명 이후로 사람이 많이 죽으니깐 정부가 좀 긴장을 했지. 그런데 군사정부라 의외로 조용히 넘어 갔다는거야.

그런데, 사실 전라북도가 더 중요한 국가사업으로 제안을 했어야 했어. 박대통령은 뭐든 다 해 줄 생각이었어. 그런데 우리가 안을 못 만들었어. 전라북도 전체를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국가사업 단위로 제안을 했어야 했는데, 우리가 그걸 못했어.

이리역폭발사고 막후의 핵심인물들



박정희 대통령과 이리역폭발사고



■ 왜 박정희 대통령은 3번이나 이리를 방문했을까?

* 이리역폭발사고는 박정희 정권의 마지막 2년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로 기록. 박정희 정권의 위기와 기회를 동시에 보여준 사건

- 재난을 관리하면서 온정적 국가주의를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헤게모니적 지배의 전형적인 패턴을 보여줌. 특히 호남에 대한 박정희 정권의 철저한 통제와 관리의 전형

* 박정희 정권 말기의 국가주의를 가장 잘 보여주는 역사적 사건으로 기록

황인성 전북도지사와 이리역폭발사고



■ 1977년 당시 전북도지사-교통부장관-3선 의원-김영삼 정부 초대 국무총리

* 육군사관학교 4기로 5.16 군사쿠데타 이후 관계(조달청장) 진출. 육군 경리장교로 국방부 재정국장을 지냄. 전북도지사로 오기 전 김종필 국무총리 비서실장

* 호남출신의 육사장교라는 희소성과 계수에 밝고 꼼꼼한 업무처리로 전북출신 최고의 정관계 경력을 쌓음. 이리역폭발사고 이후 교통부 장관, 농림수산부 장관을 지냄

* 이리역폭발사고를 박정희 정권의 관점에서 정확히 이해하고, 재난을 관리하는 행정 컨트롤 타워로 기능수행

김영광 중앙정보부 전북지부장과 이리역폭발사고



■ 1977년 당시 중앙정보부 전북도지사-사고를 계기로 전북애향운동본부를 설립한 막후

* 1971년 중앙정보부 공작과장으로 박정희-김대중 대통령선거 막후 공작 실무책임자. 1972년 판단기획국 부국장으로 10월 유신 막후 작업 총괄한 국내정치 최고의 공작 전문가로 꼽힘. 유정회, 한국국민당, 민자당 국회의원을 지냈고 안중근의사 숭모회 부이사장 (이사장은 황인성 전 총리)을 지냄

* 1977년 사고 당시 전북지부장(77.7-78.4)으로 전북민심을 관리하고, 새이리건설 등의 후속작업을 기획. 2004년 전라북도 명예도민, 익산시 명예시민 선정.

* 이리역폭발사고 미담집 <우리는 외롭지 않다> 발간의 주역

이춘기 남성학원 이사장, 채의석 이리시장, 정규철 회장

■ 이춘기 남성학원 이사장-사고 당시 희생자 유족 보상과정 등에서 역할

* 1950년 제2대 이리시 국회의원(무소속). 제5대 이리시 민의원(민주당) 을 지냄. 1905년 12월 20일 함경남도 함흥 출생으로, 1922년 함흥공립상업학교를 졸업한 후 조선식산은행 원산-이리 지점 등에서 1941년까지 근무.

* 이리남성고 설립한 이윤성 여사(화성농장주 백인기의 부인)의 조카로 여사를 설득하여 1945년 화성학원 설립.

* 1977년 사고 당시 남성고 이사장 자격으로 사고수습과 유족 보상과정에 적극 참여. 사고 이후 남성여중고는 사고 당시 천막촌이었던 소라산으로 이전.

■ 채의석 이리시장-사고 당시 이리시장 (채정룡 전 군산대 총장의 부친)

* 사고 당시 이리시장(1977.5-1980.8) 재직. 현재 93세로 현재 군산(군산 성산면 출신) 에 거주. “박 대통령께 우리 이리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니, 이재민을 위해 정부가 1천여세대 위한 집단 아파트 건립과 정부 주도하에 이리시 재건을 위해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 했고, 이로서 이리시가 30년 발전을 앞당겼다고 회고.

■ 정규철 이리시바르게살기운동 회장-사고 당시 ‘상가유가족 협조위원장’ 역할 수행

* 사고 당시 수습과정에 봉사활동으로 참여. 이후 김삼룡 총장과 함께 희생자추모사업회 활동 등 수행

이리역폭발사고 이후, 새이리건설



새이리건설종합계획의 개요

▪ 77.11.24 <새이리 건설종합계획> 발표 – 130억 규모의 건설계획

* 이리시의 시설복구에 109억 1천1백만원, 이리역 주변정화사업에 20억 8천9백만원을 투입하고 제2공단 건설과 재개발지구 개발사업은 관계기관이 시도와 협의 조정하여 별도로 추진.

- 가로망 확충과 공단 확장
- 제2공단 조성사업 – 60만평 규모, 익산시 팔봉면 일대에 조성. 내륙공업도시로 발전
- 역 주변 재개발사업 수행
- 아파트 건립과 역사 신축사업
- 이리역 일대 육교·녹지·고도 미관지구 지정

▪ 새이리 계획은 이후 반세기 익산의 발전을 좌우

- 1977년 재난 이후 세워진 새이리 계획은 결과적으로 익산의 미래를 결정하는 핵심계획이 됨. 그러나 새이리 계획은 재해로부터 불과 13일 이후 발표되어 이리시의 미래를 위한 깊은 고민과 성찰, 이리시민들의 합의와 동의 과정을 전혀 거치지 못함

새이리에 대한 시민적 바람 – 동아일보 77.11.15

"轉禍爲福(전화위복)의 새都市(도시)를..." "긴안목서 個性(개성)살려야" 廢墟(폐허)속
裡里市民(이리시민)의「바람」을 들어본다

*복구작업은 원상회복이라는 개념을 떠나 아름다운 새도시 이리를 만든다는 원대한 계획으로 추진해 주어야 한다. 피해가 컸던 창인, 모현동지구는 이재민들이 대부분 무직자 빈민들이었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이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항구적 대책도 마련해 줘야 할 것이다. 전주, 군산 등 전북 3시의 중심지이고 교통요지이면서도 개발이 잘안된 이리를 명실공히 3시의 중심지로 올려 놓기 위한 도시계획을 이 기회에 추진해야 할 것이다. (김삼룡, 53, 원광대 교무처장)

*교통요충지이며 교육, 종교도시인 이리에서 이런 엄청난 재난을 당하게 된 것은 유감이다. 이번 사고를 거울삼아 무질서한 도시구조와 협소한 도로를 재정비해서 예술미 있는 문화도시로 만들어 줄 것을 당국에 바란다. (김근수, 56, 원불교총부 교정원장)

*그리고 이번 기회에 이리시의 숙원사업이었던 천안-목포간 국도의 개설도 아울러 추진해 명실공히 교통요지로서의 지위를 갖추게 되었으면 한다. (이충희, 42, 이리시 사회계장)

새이리건설종합계획의 개요

사 업	물 량	금 액
계		20,705백만원
남 북 선	4,208m	1,626 "
동 서 선	3,500m	2,116 "
중 앙 로	1,604m	1,630 "
배 산 선	3,400m	800 "
인 북 선	2,520m	186 "
육 교	140m	137 "
조 경	3,700m	71 "
송 학 선	1,240m	430 "
제 2 공 단 조 성	60만평	5,299 "
이 리 역 신 축	900평	868 "
고 도 미 관 지 구	36동	1,354 "
모 헨 아 파 트	26동	4,063 "
창 인 "	6동	1,102 "
창 인 상 가	2동	1,023 "



■ 총 사업비 207억원

새이리종합건설의 기본개요와 내용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관점 필요. 실제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새이리 건설사업의 핵심은 도로건설과 공단조성 등 최소한의 개발계획으로 평가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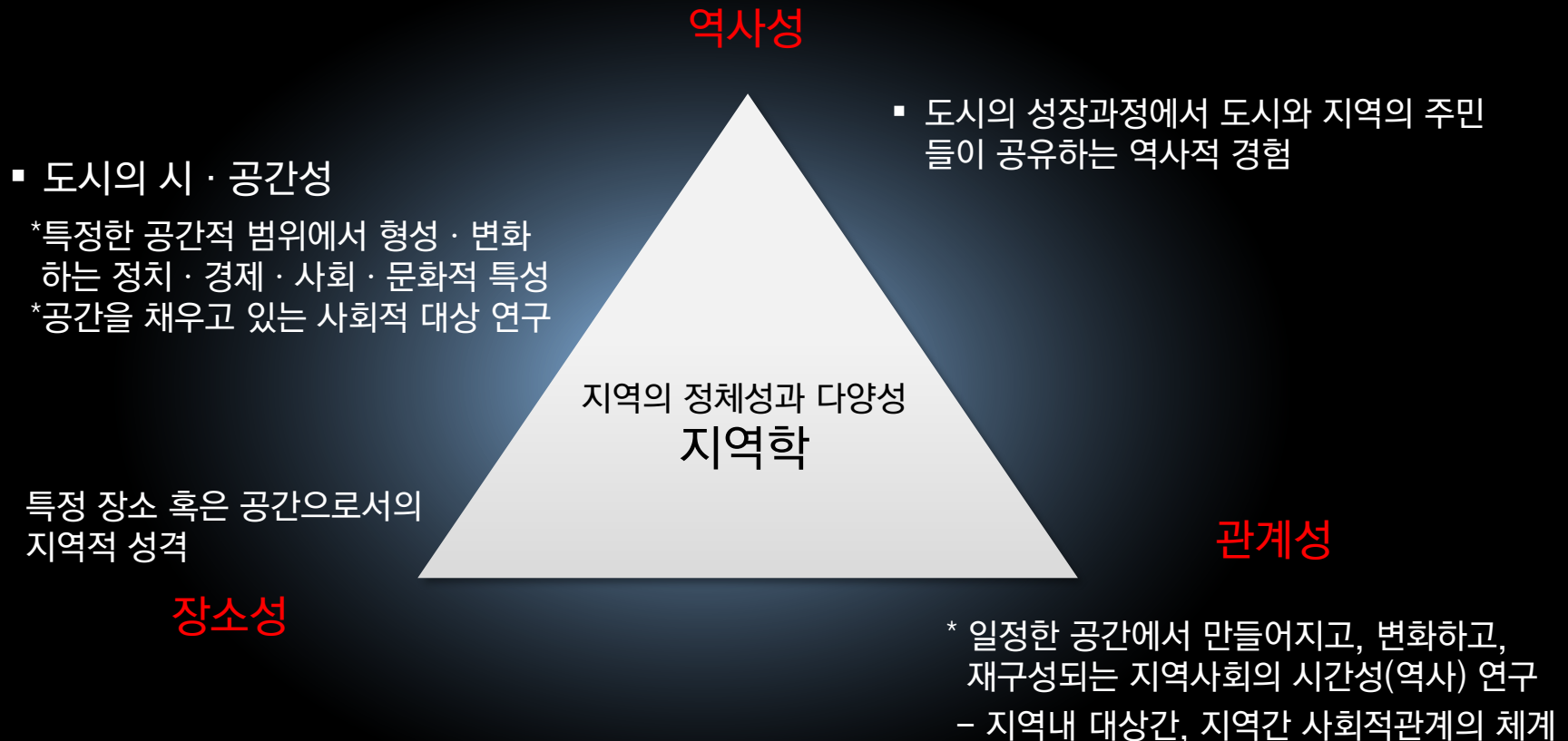
이리역폭발사고,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

-지역학의 관점과 도시정체성의 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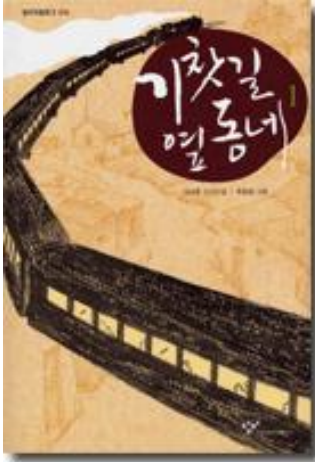


지역학의 개념과 구성

지역은 지역 자체가 아니라 지역 내에 존재하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사회적 대상(특히 주민)이 상호작용하는 것으로, 정체성을 형성하고 다양성으로 표상된다



소설 <기차길 옆동네>와 <삼남극장>, 영화 ‘이리’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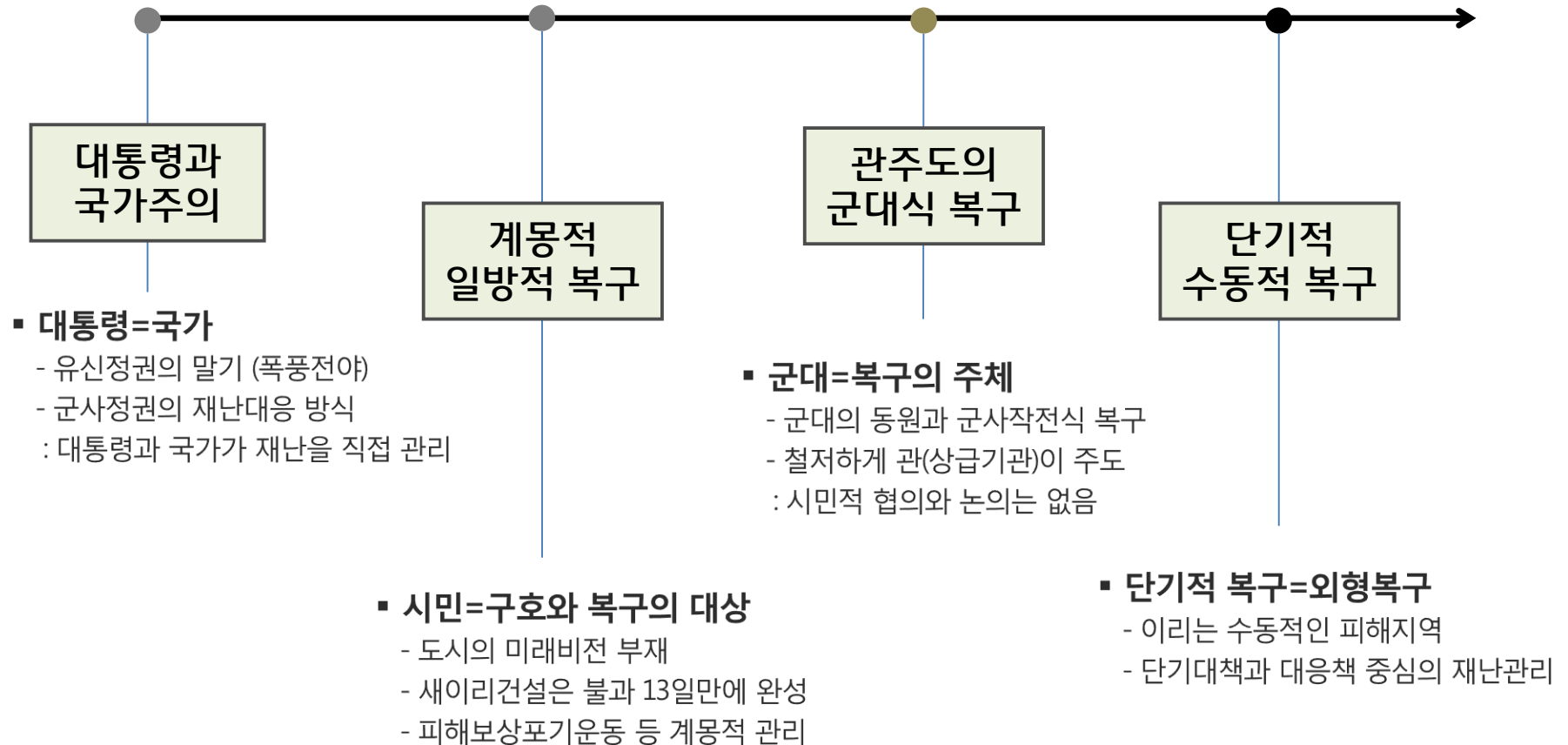
■ 이리역 폭발사고를 다룬 소설, 영화 등이 등장

* 이리역폭발사고를 소재로 하고 있으나 이리역폭발사고가 하나의 에피소드나 사고 후 결과로 다뤄짐.
이리역폭발사고를 심도있게 다루거나 묘사한 내용은 거의 없음

■ 이리역 폭발사고에 대한 국가적, 시민적 인식정리가 안되어 있다는 점. 우리에게 이 사건은 무엇인가가 명확하게 정리되지 못함.

* 이리역 폭발사고에 대한 익산시민의 ‘인식 포지셔닝’이 정확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음. 도시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도시정체성과 연결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이리역 폭발사고의 담론 : 기억의 구성



이리역 폭발사고와 국가주의 : 1977년의 의미

■ 1977년의 의미 : 폭풍전야의 적막과 안정감

- 1975년 5월 긴급조치 9호 선포 이후 1978년까지의 정치적 안정기. 유신정권의 최대 안정기를 구가
 - * 정치적으로 박정희 유신정권의 가장 안정적이었던 시대
 - * 긴급조치 시대를 지나, 반독재 민주화운동에 대한 억압이 최고조에 이르고, 정권 내부의 분열이 시작되는 시기

■ 1978년 - 정권의 위기가 시작

- * 중동건설붐이 끝나고 경제침체가 시작. 12월 총선에서 여당(민주공화당)이 참패하면서 박정희 정권의 정치적 위기가 시작.
- * 3.1 민주선언 발표. 반독재 민주화운동이 다시 불붙기 시작하는 시기

이리역 폭발사고는 78년 유신정권이 무너지기 시작한 시점에서 그 직전에 터진 대형사고로서의 의미가 있음. 유신정권으로서는 국가적 재난관리의 능력을 보여주고, 국가적 안정을 과시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 77년에 대형사건과 사고가 없었다는 점도 국가주의가 발현될 수 있는 여지를 줌

이리역 폭발사고에 대한 시민적 인식의 부조화

■ 이리역 폭발사고의 중요성은 인지하고 있으나 기억하고 싶지 않다는 기저의 사고

* 일종의 인지부조화(cognitive dissonance) 현상이 나타남. 도시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으로 인지하고 있으나 ‘말하기 꺼려하는 역사’로 자리잡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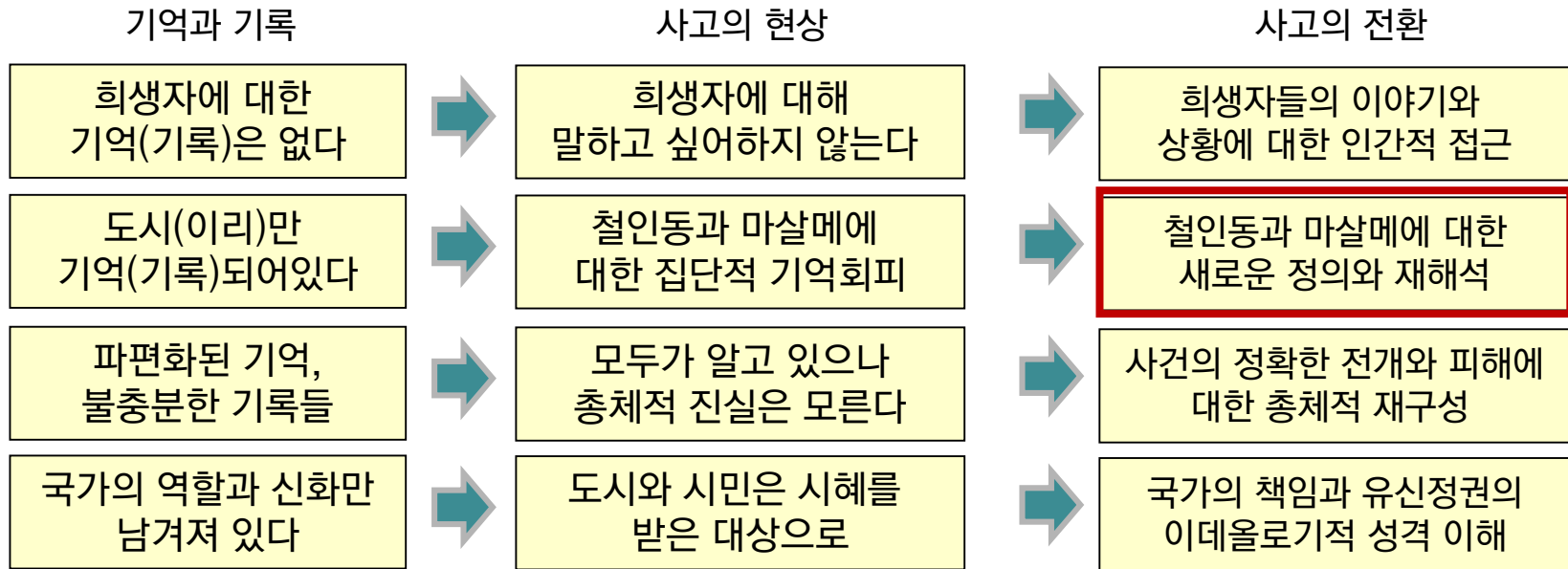
* ‘철인동과 마살메에 대한 불편한 기억, 사고 당시 희생자에 대한 완전한 조의’를 다하지 못했다는 점, 정당하지 않은 정부로부터 ‘뜻밖의 보상’을 (도시로서나 개인으로서나) 받았다는 의식 등이 기저에 있음. 특히 사고 후 2년만에 박정희 정권이 무너지면서 후속작업의 연속성이 무너지면서 나타난 허탈감 등이 공통적으로 포착됨

* 특히 ‘사고 후 보상’의 과정에 대해 실체적인 진실이 밝혀질 필요가 있음. 이리역폭발사고에서 가장 어려운 두 가지 이슈가 ‘사망자’와 ‘보상’에 있음

■ 이리역 폭발사고에 대한 국가적, 시민적 인식정리가 안되어 있다는 점. 우리에게 이 사건은 무엇인가가 명확하게 정리되지 못함.

* 이리역 폭발사고에 대한 익산시민의 ‘인식 포지셔닝’이 정확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음. 도시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도시정체성과 연결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이리역 폭발사고에 대한 인식의 좌표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 **✓ 40년의 세월이 지난 역사적 사건** : 사건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방식의 전환 필요

✓ 도시의 정체성 회복 계기 : 익산의 도시정체성을 정확하게 만들어가는 과정

지역학, 도시정체성이 관점

‘도시에 남겨진 공유된 경험과 기억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 도시 전체가 공유하는 하나의 기억은 결코 흔치 않음 (광주민중항쟁과 택시운전사)
- 그 기억을 재구성하고 새롭게 의미 부여하면서 도시정체성을 형성
- ‘진실’에 기반한 이리역폭발사고에 대한 기억의 재구성 필요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극적인 도시’로서의 정체성

- 일종의 ‘극장도시’. 한 편의 영화와도 같은 도시의 스토리를 구성
- 도시의 정체성이 반드시 긍정적이고 도덕적이며 계몽적이어야 하는가
- **익산의 역동성, 다양성, 처절성, 신파성 등을 도시의 스토리로**
 - *이리역 자체가 강한 스토리 – 이리역 설립, 이리역 오폭, 철인동, 폭발사고 등

정확한 사건 현장에 표식을 세우고, 추모탑의 위치를 옮겨야 한다

사고 현장은 지금 아무런 표식이 없다. 추모탑은 익산 KTX 역사의 한 구석에 있어 제대로 찾아보기도 어렵다. 위치를 옮기고 시민적 기념이 될 수 있어야

사진자료집과 스토리 전시회 개최

이번 조사에서 발굴된 사진자료와 영상자료, 구술자료 등을 바탕으로 사진자료집을 간행하고 이리역 폭발사고 전과 후를 비교하는 스토리 전시를 개최

구술자료집의 발간과 시민백서의 분리

구술사업을 추가로 진행하여 구술자료집을 완성하고, 시민백서를 발간

이리역폭발사고를 중심주제로 하는 다양한 문화콘텐츠 제작

이리역폭발사고에 대한 자료집과 백서를 바탕으로 소설, 영화 등 문화콘텐츠가 제작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

감사합니다.